



“당장 뛴 수 있게 파워 더 키우겠다”

‘닭띠’ 김주찬, 2017 타이거즈 선봉에 선다

허벅지 수술 후 재활 순조…가을잔치·우승 준비 착착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해가 밝았다. 붉은 닭의 해, 닭띠 김주찬(36)이 KIA 타이거즈의 2017시즌 중심에 선다.

KIA에서는 수장 김기태 감독(1969년생)을 필두로 김주찬·이범호·김광수·이성우(이상 1981년생), 김윤동·임기영(이상 1993년생)이 닭띠다. 이 중에서도 ‘호랑이 군단’의 ‘닭의 해’를 이룰 인물로 김주찬에 가장 눈길이 쏠린다.

외야수 김주찬은 이범호에 이어 ‘캡틴’을 맡을 유력한 후보다. 팀을 대표하는 열골로 새 시즌을 맞게 될 김주찬은 팀 공격에서도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 선수다.

지난해 김주찬은 0.346의 타율과 함께 23개의 홈런을 날리며 생애 첫 20홈런을 넘어섰다. 동시에 101타점을 쓸어담으면

서 처음 100타점 고지에도 이름을 남겼다. NC 정수민의 공에 맞아 좌측 견갑골 미세 골절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130경기에 출전하면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장하기도 했다.

폭발적인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 17년차 김주찬은 쟁쟁한 후보들을 누르고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품었다. 야구 인생 최고의 성적을 쓴 김주찬은 잊을 수 없는 2016년을 보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2017시즌을 그려가고 있다.

김주찬은 “골든 글러브를 받을 거라고 확신은 못했는데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벌써 다 그 순간은 잊었다. 선수 생활을 끝내고 난 뒤 골든글러브의 기억이 나겠지만 지금은 다 잊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이다”고 언급했다.

의욕이 넘치는 김주찬이지만 그를 향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김주찬은 지난 11월 말 왼쪽 허벅지부위의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제법 큰 종양이었던 만큼 그의 건강 상태는 조미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를 뒤로하고 김주찬은 건강한 모습으로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월 합평 챌린저스필드 재활센터를 오가며 재활훈련을 했던 그는 1월에는 따뜻한 관에서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주찬은 “몸 상태는 이상이 없다. 당장 전력으로 달려도 될 정도로 허벅지 상태가 좋지만 한국에서는 날씨가 추워서 속도를 조절했다. 관에서는 훈련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타준족으로 대표되던 김주찬은 지난 2년 자신의 야구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다. 리그에서 알아주는 빠른 발을 보유했

지만 그만큼 공격적으로 뛰느라 부상에 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스피드를 줄인 그는 대신 파워를 높였다. 특유의 호쾌한 스윙과 정교한 타격 기술로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한 그는 올 시즌에도 지난해와 같은 모습으로 타석에 설 예정이다.

최형우의 영입과 나지완·양현종의 잔류로 막강 전력을 구축한 만큼 KIA의 성적은 2017시즌 프로야구계의 핫이슈다. 김주찬은 ‘가을잔치와 우승’을 자신의 큰 목표로 언급해 왔다. 여기에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재취득하게 되는 만큼 2017년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해다.

김주찬은 “다른 특별한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건강하게 풀타임을 뛰는 게 큰 목표다. 타격에서는 아무래도 파워 쪽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올 시즌을 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모든 시상대에 서겠다”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월드컵 3차 대회 위해 독일로



월드컵 출전을 위해 독일로 향하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원윤종(왼쪽)과 서영우가 1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썰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은 어느덧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할 만큼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그 중심에는 남자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종(32)·서영우(26)가 있다.

둘은 지난 시즌을 세계랭킹 1위로 마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16~2017 시즌 들어 치른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는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현재 세계랭킹은 캐나다 팀에 이은 2위다.

연말을 맞아 지난달 19일 일시 귀국한 원윤종·서영우 등 봅슬레이 대표팀은 1일 월드컵 3차 대회가 열리는 독일로 출국했다. 원윤종은 출국에 앞서 “1, 2차 대회에서는 목과 허리 부상의 여파로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거뒀다”며 “이제 경기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3차 대회는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오는 7일 열린다. 이어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가 출몰이 열린다.

원윤종은 “모든 시합에서 시상대에 서는 게 목표”라며 “올 시즌 경기를 뛰는 외국

선수들과 올림픽에서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썰매는 다른 어느 종목보다 경기장 적응도가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친다. 어지간히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눈을 감고 탈 수 있을 만큼 트랙에 익숙한 선수를 당해내기 쉽지 않다. 원윤종·서영우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일’을 낼 것으로 큰 기대를 받는 이유다.

드라이버인 원윤종은 “트랙이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구간이 몇 개 있다”며 “그 부분에 승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윤종·서영우는 1, 2차 대회에서 아직 평창 트랙을 경험해보지 못한 외국 선수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원윤종은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다. 한국 대표팀의 이점이기 때문에 코스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썰매를 미는 푸시맨인 서영우는 “지금도 한국에 트랙이 생긴 게 믿기지 않는다”며 “평범한 산이던 지점에 트랙이 만들어진 게 정말 신기하다. 한국 트랙에서 썰매를 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밤 10시의 농구

‘흥행 대박’

31일 오리온-SK전

6천여 관중 새해 맞아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가장 늦은 시간에 시작한 프로농구 송년 경기에 6000여 관중이 몰려 ‘흥행 대박’을 이뤘다.

지난 12월 31일 밤 10시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 서울 SK의 경기는 KBL이 야심 차게 준비한 이벤트다. 원래 오후 4시에 시작될 예정이던 이날 경기를 밤 10시에 시작, 경기 종료 시각을 새해가 오는 자정 가까스로 맞추면서 ‘송년 매치’로 치르자는 취지였다.

이미 경기 시작에 앞서 1, 2층 인터넷에 매분 2400장이 일찌감치 매진됐고, 현장 판매분은 원래 3200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총 3600장 넘게 팔렸다. 결국 경기 시작 전에 이미 5400장 이상의 입장권이 판매됐고, 이날 총 관중은 6083명으로 집계됐다.

매진될 경우 5600명으로 예상됐던 이날 경기에 6000명 이상이 들어와 고양체육관 개장 이후 프로농구 경기로는 최다 관중이 기록된 것이다.

‘송년 경기’에서는 서울 SK가 77-74로 고양 오리온을 제압하면서 웃었다.

최근 2연승을 거둔 SK는 9승 16패를 기록하며 2016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반면 4연승에 도전한 홈팀 오리온은 경기 내내 앞섰지만 4쿼터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SK에 승리를 내줬다. SK는 상글루이 18점, 17리바운드를 기록했고 김선형은 18점, 12어시스트로 나란히 더블더블을 달성했다.

경기가 막판까지 동점으로 진행돼 연장전에 들어갔더라면 날씨는 물론 해가지 바뀌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밤 11시 49분에 경기가 종료됐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경기장은 새해맞이 축하의 자리로 바뀌었다.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서도 홈팀 오리온 뿐 아니라 2016년 한해 프로농구 주요 행사들이 소개됐다. 또 2017년을 60초 남기고 시작된 카운트다운에서는 10개 구단의 로고가 차례로 전광판에 선보이며 ‘농구 인기 부활’의 취지로 마련된 이날 송년 경기의 의미를 더했다. /연합뉴스



지난 12월 31일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과 서울 SK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후 농구팬들이 새해 카운트 다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체육회-체전 유공자 성금 12명에 장학금 전달

광주시체육회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30일 체육회 중회의실에서 모든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6 체육장학상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장학금은 패러글라이딩 박건준(광주제일고 3년)을 비롯한 전국체전, 소년체전, 생활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단정한 품행으로 타의 모범이 된 학생 12명(고 7명, 중 5명)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전달할 장학금의 재원은 시체육회 직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적립한 장학금과 2015년 제9회 전국체육대회 유공자(공로 연수자)들이 심시일만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시체육회 직원들은 그동안 총 41명에게 20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시체육회 유재신 상임부회장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제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지급 내역

▲시체육회 임직원 직립 장학금 대상자 : 박건준(광주제일고 3년·패러글라이딩), 박두환(정광고 2년·역도), 정예리(문정여고 2년·볼링), 박원철(광주공고 2년·플로어볼), 김일준(단경고 1년·축구), 윤세진(비야중 3년·육상), 성현태(광주체육고 2년·복싱), 권형민(전대사대부중 2년·배드민턴), 박상완(문성중 1년·태권도)

▲제9회 전국체전 유공자 선정 장학금 대상자 : 이슬기(조대여중 2년·핸드볼), 김선우(광주체육고 1년·양궁), 이승훈(광주고 1년·농구) /김자을기자 dok2000@

30초만에… 기성용 2016 최단시간 경고 받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2016년 최단시간 경고라는 쑥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기성용은 지난 12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30초 만에 옐로카드를 받았다.

유럽 축구전문 통계업체 ‘옵타’는 “이는 2016년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온 최단시간 경고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발가락 끝절로 41일 만에 복귀한 기성용은 킥오프 직후 불을 돌리던 상대 팀 공격수 라이언 프레이저를 향해 깊은 태클을 했다. 주심은 지체 없이 옐로카드를 들었고, 기성용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태클에 항의하는 상대 팀 선수와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기성용이 올 시즌 경고를 받은 건 처음이다. 스완지시티는 0-3으로 지면서 4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